

스웨덴 2011년 노동시장 전망

손혜경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경제사학과 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 경제는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경제 및 금융위기의 여파를 잘 넘기고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아직도 불경기의 여파로 고전을 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 특히 유로화권의 몇몇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괄목할 만한 사항이다. 스웨덴 경제는 2010년 전 기간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2010년 3/4분 기간 국민총생산의 증가는 2009년 동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6.9%나 높은 수치이다¹⁾. 이렇게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스웨덴 경제는 마침내 금융위기 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 것이다. 스웨덴의 최근 이렇게 높은 경제성장률은 그동안 위축된 노동시장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이러한 경제 현황을 배경으로 우선 스웨덴의 빠른 경제회복 비결과 고용률 증대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의 노동시장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다. 또한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1)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2010-12-21, "Konjunkturläget,"

■ 스웨덴의 빠른 경제회복 비결 및 고용률 증대 현황

스웨덴 경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빠른 회복세를 보일까? 그 이유는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스웨덴 정부가 세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시장확대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경제성장에 있어 또 한 가지 동력은 국제시장에서 스웨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수출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적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세계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스웨덴의 수출에 대한 수요도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스웨덴 제조업의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스웨덴의 전체 수출량은 2008년 불경기 시작 직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스웨덴의 수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약 10% 증가하였는데 2011년과 2012년에는 약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 경제의 빠른 회복은 또한 스웨덴 정부가 국내시장의 수요 확대를 위해 펼친 기준금리 인하 및 임금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각종 경기진작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스웨덴 경제회복기에 있어 국제시장에서의 스웨덴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감안하면 약간 차이가 난다. 국내시장 활성화정책은 스웨덴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스웨덴 가계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스웨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6.5%만큼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0년도 스웨덴 가계의 소비량이 3.6%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정부의 각종 국내시장 활성화정책 덕분으로 현재 스웨덴 가계는 앞으로도 경기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

스웨덴 경제를 산업별로 살펴볼 때 제조업이 2010년 후반기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제조업의 생산량도 경기가 최고점을 달했던 2008년과 비교할 때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제조업계의 상황과는 달리 스웨덴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량이 2008년과 비교할 때 더욱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의 경우 2008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상태이다. 경기 후퇴 기간 중에도 스웨덴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불경기는 제조업에 비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 스웨덴의 경기 회복이 국제시장보다는 국내시장의 확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스웨덴 기업가들도 앞으로 경기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할 때 스웨덴의 2011년 1/4분기의 경제는 2010년 3/4분기만큼은 높지 않겠지만 계속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근 스웨덴 정부와 중앙은행은 스웨덴 경제의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의 위기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여 스웨덴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금융위기 및 불경기 중 경기확대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자 상당수의 스웨덴 국민들이 기회 의식을 갖고 부동산 대출을 확대해 스웨덴의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부동산 붐을 잘 표시하는 예로 지난 해 12월을 기준 1년 후 개인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53%,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51%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 초에 경험한 부동산 투기 및 금융위기를 상기하며 또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불경기를 대비해 주택의 시장가격 대비 대출상한제 도입, 대출금 조기반환 요구,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주택 대출이자 감세율 인하 등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²⁾.

스웨덴 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라 스웨덴의 고용률도 계속 회복세를 보여 고용률은 2009년 3/4분기에 최저점에 도달한 이후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구가 약 9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 고용인구가 이렇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현재 고용률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여름의 고용률과 비교할 때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스웨덴의 실업률은 현재 8%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 노동시장의 불경기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2008년 가을 이후 장기실업자수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그룹의 인원들이 전체 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³⁾. 이렇게 높은 실업률과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집권 연장에 성공한 중도우파 정부의 국가 운영 신뢰도에 손상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2) Ibid.

3) 스웨덴 통계청의 통계 방식에 의하면 실업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장기실업자로 구분된다. 경기가 최고점에 기록한 2007년 4/4분기의 경우 장기실업자의 수가 6만 8,000명이었는데 2010년 3/4분기의 경우 장기실업자의 수가 12만 6,000명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동 기간에 걸쳐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25%에서 33%로 증가하였다(Svenska Dagbladet, 2011-01-14, “Sist i kön väntar de långtidsarbetslösa”)

■ 스웨덴의 최근 노동시장 현황

2010년 12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스웨덴 노동시장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된 구인광고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감원 조기 통보 인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10년 12월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된 구인광고수는 약 4만 6,000건인데 이는 지난 수십년을 통틀어 12월에 등록된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이다. 12월에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된 인원은 40만 7,000명인데 이 중 21만 6,000명이 실업자(4.5%)이고 나머지 19만 1,000명(4.0%)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실업자이다.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8.5%에 해당한다. 스웨덴 노동시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직에 성공하는 실업자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구인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과 비교할 때 약 두 배가 높은 수준이다⁴⁾. 또한 사무직노동자의 노동시장도 2010년 기간 동안 상당히 호전되었다. 이는 2010년에 사무직노동자 전문 노동재활기관(Trygghetsrådet)에 등록한 실업자가 2009년에 비해 약 반 수만큼 절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⁵⁾. 또한 사무직노동자 전문 노동재활기관에 등록 후 적극적으로 구직에 들어간 실업자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실업자가 구직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노동자 전문 노동재활기관은 2011년 중에는 2010년보다 약간 낮은 수치의 약 1만 1,000명의 사무직노동자가 재활기관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 문제는 스웨덴 노동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국영직업알선소가 업무 능력을 계속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자들이 구직을 할 경우 본인의 예전 직업과 비슷한 직업에 구직을 제한하지 않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경우 구직에 성공할 비율이 높다⁷⁾.

4) AMS, 2011-01-17, Pressmeddelande "Arbetsmarknadsläget i december 2010."

5) 좀더 정확히 말하면 2009년의 경우 사무직노동자 전문 노동재활기관에 등록한 실업자가 2만 6,970명인 데 비해 2010년에는 1만 4,862명을 기록하였다(TRR, 2011-01-26, "TRRs arbetsmarknadsstatistik för 2010, hela landet").

6) TRR, 2011-01-26, "TRRs arbetsmarknadsstatistik för 2010, hela landet."

7) AMS, 2011-01-17, Pressmeddelande "Arbetsmarknadsläget i december 2010."

■ 스웨덴 노동력 수요 직업별 큰 격차 존재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 스웨덴의 노동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노동력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컴퓨터 교육 경력이 구직시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경기는 현재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며 노동시장에 있어서 세대간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스웨덴 노동시장에 있어 노동자의 수요 증가가 보통의 경기 회복시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노동시장 위원회는 이런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상당수의 직장은 최소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를 찾고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프로그래머 및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가들을 스웨덴의 고용주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건축기사, 대졸 출신 공학 기사, 전문대 공과 출신자들의 노동시장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장거리 화물차 기사도 인기 직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에 교육을 받은 화물차 기사들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기 있는 직종도 있지만 반대로 도소매업, 호텔, 식당업 종사자들은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분야는 구인율이 높기는 하지만 또한 지원자들의 수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사무직 종의 구인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⁸⁾. <표 1>은 노동력 부족 및 과잉 직업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금년과 내년 중 노동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직업들 중 많은 직업들이 남성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는 직업들이다. 이는 앞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의 주로 일하는 직업에 도전하지 않으면 고용률이 낮아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⁹⁾. 실제로 최근 스웨덴의 경기 회복 기간에 남성들의 고용률이 여성들의 고용률보다 더 상승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10년 현재 남성과 여성 간의 고용률의 차이가 5%인데 수치로 밝힌다면 남성 노동자의

8) AMS, 2011-01-27, Pressmeddelande, "Var finns jobben 2011 - Brist på arbetskraft - ett ökande problem."

9) AMS, 2011-01-27, "Var finns jobben 2011."

〈표 1〉 스웨덴 2011년 노동인력 부족 및 과잉 직업

2011년 노동인력 부족직업	2011년 노동인력 과잉 직업
토목기사, 건설기사, 전기기사, 토목기술전문가, 박판공, 의사, 배관공, 수술실전문간호사, 간호사 정신과 치료사, 유아교사, 건설업 시멘트공, 선박기계전문가, 배관시설 설치기사, 화물차 정비기사, 고등학교 실업교육 담당교사, 건설업 설비공, 타일공, 포크레인기사, 일반기계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마루바닥시공전문가, 지역 보건소 간호사	선원, 유아시설 종사자, 보건시설 종사자, 일반 식당 및 전문식당 종사자, 접수요원, 전문품 판매원, 창고업 종사자, 일일소매품 판매원, 생물학자, 사진사, 시설 관리원, 행정직 (비서직), 청소업 종사자, 화물차운전자, 물류 관리자, 택배 배송 담당원, 금속, 고무, 플라스틱 설치원, 저널리스트

자료: 스웨덴 노동시장 위원회(AMS).

숫자가 여성 노동자의 숫자보다 약 23만 명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스웨덴 남녀 간의 고용률 차이는 20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¹⁰⁾. 위의 표에서 특히 2011년 중 노동인력 부족 및 과잉 직업을 지적하였는데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에 인력 부족을 경험할 직업은 그와 약간 차이가 있다. 스웨덴 노동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을 경험할 직업으로 회계사, 판매원, 치과 의사, 전문간호원, 고등학교 직업교사, 유아교육 담당 교사, 특수 교사,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가 꼽히고 있다¹¹⁾.

■ 노동수요의 지역간 격차

스웨덴 노동시장에 있어 노동력 수요는 직업에 따라 격차가 있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 물론 인구도 많고 사업이 활발한 대도시 지역의 노동시장 전망이 좋은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 서부 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동시장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은 스톡홀름 시와 스톡홀름에 바로 인접한 솔나 시이며, 이와 반대로 노동시장 전망이 가장 나쁜 곳은 스웨덴 북부의 베스테르보텐(Västerbotten) 지역의 오셀레(Åsele) 시이다. 특히 스웨덴에서 노동시장의 전망이

10) Svenska Dagbladet, 2011-01-05, "Män jobbar mer än kvinnor."

11) AMS, 2011-01-27, "Var finns jobben 2011."

좋은 22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볼 경우 이 중 17개 지역은 인구가 최소 5만 명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외에 속하는 지역은 스웨덴 남부 Småland 지역의 Värnamo, Älmhult, Gislaved och Ljungby 시이며 또한 스웨덴 서부 Bohuslän 지역의 Strömstad 시로 밝혀졌다¹²⁾.

■ 스웨덴 노동시장의 몇 가지 문제점

스웨덴의 실업률이 다른 유럽연합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고,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 노동시장의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중도우파 정부는 2006년 9월 집권 이래 줄곧 국가 총생산 증가를 목표로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을 취하였다. 중도우파 정부의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은 과거 사회민주당 정부가 스웨덴의 실업률을 낮추려는 의도로 노동가능인구 중 상당수의 인원을 조기퇴직 및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자 등의 명목으로 감추었다는 정책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중도우파 정부는 장기(병가휴가 180일 이상인) 병가 휴가자들에게 병가수당의 지급을 중지시키고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해 적극적으로 구직에 들어가도록 조치하였다. 실제 통계의 의하면 병가수당 수급기간 및 병가 휴가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반수가 다시 병가 휴가 상태로 복귀한 상태이다¹³⁾. 중증의 병을 앓고 있는 상당수의 병가 휴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의 반강제적인 노동시장 복귀정책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성공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복지국가를 자처하는 스웨덴 내에게 자행된 ‘비인간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방송 매체에서 지적되어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회 문제는 2010년 총선 막바지에 특히 큰 이슈가 되어 중도우파 정부의 큰 약재로 작용

12) Dagens Nyheter, 2010-11-03, "Sveriges bästa arbetsmarknad."

13) Försäkringskassan, 2010-12-20, "Sysselsättning och försörjningskällor efter avslutad period med sjukpenning eller tidsbegränsad sjukersättning."

할 뻔하였다. 또한 이렇게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중도우파 집권 이래 4년간 청년층(30세 이하) 조기연금수령자¹⁴가 급격히 거의 50%만큼 증가했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990년의 경우 30세 이하 조기연금수령자는 약 1,500명을 기록하였다. 2006년에는 이 수치가 4,500명으로 증가했는데 2010년 경우 이보다 더 높은 6,700명을 기록하였다. 이런 통계가 청년층 조기연금수령자가 중도우파 집권 기간 4년에 걸쳐 50%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노동시장의 외부로 몰아낸 이런 사회정책은 중도우파 정부 내에서도 ‘대단한 정치적인 과오’로 인정되고 있으며, 담당 사회보험 장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2011년 중 이 청년층 조기연금수령자를 1/3로 줄이겠다고 약속하였다¹⁵. 문제는 정부의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정책을 정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된 청년층 시민을 강제로 노동시장으로 모는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노동시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 부족은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스웨덴의 고용주들은 스웨덴 내 실업률이 높음에도 적절한 직업 경력과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 고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영자협회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지난 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20%의 기업들이 적절한 인력 고용에 실패했으며 기업가 열 명 중 여섯 명이 적절한 고용 경험과 교육을 가진 인력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은 사실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경영자협회는 특히 직업고등학교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은 졸업 후 실업률이 거의

14) 스웨덴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노동시장에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보험국에서 연금수령자로 결정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조기연금수령자의 판단 및 결정은 정부기관에서 하므로 한 번 결정될 경우 보통 노동시장에서 완전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 사회민주당 정권에서도 많은 장기실업자를 조기연금수령자로 전환시킨 일이 있어 중도보수파에서 많은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조기연금수령자로 결정되면 노동자가 완전히 사회의 주변부에 몰릴 수도 있고, 또한 나중에 정상 연금연령에 이르러 연금 받을 때도 기본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고령 저소득층을 형성하는 문제가 생긴다.

15) Svenska Dagbladet, 2011-01-26, “Förtidspension för allt fler unga.”

80~90%에 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직업고등학교 프로그램 선택 시 부모들과 학생들 모두 미래 노동시장의 전망에 대한 정보를 주시할 것을 강조한다¹⁶⁾.

■ 맺음말

최근 스웨덴의 경기 회복세가 예전과 달리 국제시장의 회복이라기보다는 국내시장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스웨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앞으로 국제시장의 긍정적인 발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스웨덴의 주요 거래 대상국인 몇몇 OECD국가들의 국가재정이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것은 스웨덴 경제 성장에 큰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유로화권역 외부에 위치한 아이슬란드 그리고 유로화권역 내의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진행 중인 국가 재정위기를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이 2011년과 2012년에 계속 긴축정책을 펼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일부 유럽연합 국가의 긴축정책은 2011년과 2012년 양년 간 OECD의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결국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 확실시되며 결과적으로 스웨덴 노동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 노동시장의 위축은 청년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출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지역별·직업별 균형발전 및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서 더욱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이 틀림없다. **KLI**

16) 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s, 2011-01-14, "Många gymnasieutbildningar leder till arbetslöshet." 직업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아동보육 및 방과 후 시간 지도자 프로그램과 상업 및 행정직 전문 프로그램이다.